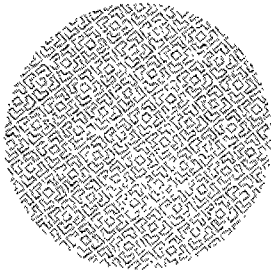


1. 輸入環境의 變化

電氣機資材 輸入과  
우리의 重電機工業

Electrical Equipment and  
Material Imports and Our  
Heavy Electrical Industry



盧 秉 泰

現代重電機(株) 常務理事

80년대 들어 歐美선진국의 성장세 둔화로 인한 保護貿易主義의 強化로 인하여 우리의 수출증대를 통한 經濟成長戰略이 증대한 시련을 맞고 있는 것이 現今의 실정이다. 정부는 自由貿易하의 GATT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國際的 義務履行側面과 꾸준한 對外市場 開放壓力에 따라 과감한 輸入自由化計劃을 推進해 나가고 있다.

또한 關稅制度上的 競爭 制限 要素를 제거하여 왜곡된 資源配分機能을 시정하고 自由競爭市場의 원리를 도입, 우리 經濟의 累積된 非能率을 제거하며 貿易障壁의 보호 아래 있던 기업에 國際競爭體制를 導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우리의 外債規模가 83년말현재 400억불에 이르고 外債償還能力의 指標가 되는 Debt Service Ratio가 16%線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면에서는 輸入自由化가 가져올 國際收支上的 惡化를 뺀히 알면서도 苦肉之策을 쓸 수 밖에 없는 정부의 고충이 짐작이 간다.

더구나 우리의 경쟁국인 日本이 1963년도에 輸入自由化率이 93%선을 넘어섰고 台灣 또한 75년 이래 그와 비슷한 수준의 輸入自由化를 施行하고 있다는 데에는 달리 選擇의 여지가 없어져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표 1과 같이 년도별 輸入自由化 計劃이 예정대로 推進될 경우, 그리고 1988년도에 電氣電子機器의 輸入自由化率이 100%에 이를 경우 과연 10년 안밖의 年輪을 가진 우리 기업이 그보다 몇배의 歷史를 가진 先進企業에 대하여 關稅率 30%의 價格競爭만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이며, 組立産業段階에 머물러 있는 重電機器의 大企業이 오랜 國產 部品の 不信風潮에도 불구하고 部品調達을 國內 中小企業에 전적으로 依存하게 될 것인지?

輸入自由化와 關稅制度의 改編이 國際貿易自由化

〈表-1〉 年度別 輸入自由化 推進計劃

(單位: %, 個)

區 分	總品目	制 限 品 目	年 度 別 豫 示 品 目					推 示 密 保
			'84	'85	'86	'87	'88	
電子· 電氣機器	495	214 (51.3)	53 (62.0)	59 (73.9)	64 (87.0)	48 (96.6)	17 (100.0)	-
全 株	7,915	1,560 (80.3)	349 (84.7)	237 (87.7)	309 (91.6)	174 (93.8)	112 (95.2)	379

資料: 商工部

原則과 우리기업의 國際競爭力 培養을 위하여 不可避한 것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進정한 의미의 國際競爭力를 갖기 위해서는

첫째, 업종별 經濟規模의 測定과 技術水準의 現住所를 鳥瞰한 受容態勢의 點檢이 前提가 되어야 하며,

둘째, 輸入自由化와 關稅制度改編의 基本骨格 아래 産業製品의 使用 및 開發을 制度的으로 誘導할 수 있는 政策의 補完이 뒤따라야 하고,

셋째, 기업의 自發的인 노력아래 産業構造의 高度化 및 競爭力強化를 위한 戰略의 再整備가 先行되어야 한다.

## 2. 重電機工業의 現住所

輸入自由化의 挑戰을 받고 있는 우리의 重電機工業은 그 규모의 零細性和 技術水準의 低位로 특징 지워지며, 部品工業의 低邊脆弱과 組立企業 形態의 大企業과의 二重構造의 심각한 隔差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1) 規模의 零細性

우리의 重電機工業은 全体的인 市場規模의 협소로 인한(1981년 일본의 10%수준) 規模의 經濟를 示顯 못하고 있다.

重電機工業의 全体生産額은 1976년에서 1981년 기간중에 연평균 42%의 成長을 하였으나 1980년 기준으로 우리 製造業全体的 3.3% 수준이며 輸出實績은 불과 2.0%수준에 머물고 있다.

資産規模 또한 1억원미만의 업체가 50%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零細性を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技術水準의 低位

重電機工業은 技術集約도가 높은 産業임에 비하여 우리의 重電機工業은 先進國에 비하여 技術蓄積期間이 짧아 導入技術의 消化段階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需要豫測의 不確實 및 技術開發投資의 未洽으로 國內技術의 發展速度가 先進國의 技術進歩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어 先進國과의 國際競爭에서 더욱 落後될 우려가 있다.

특히 重工業育成施策에 依하여 部品工業의 低邊이 없는 가운데 大企業의 外形의 膨脹이 두드러져

部品の 대부분을 導入에 依存하는 組立企業의 形態로 不均衡成長을 하고 있다.

品質水準은 70年代 후반에 들어 強力한 政府施策에 힘입어 상당한 改善에 成功하였으나, 1981年度의 경우 輸入依存도가 51%로서 表2와 같이 전체적인 自立도가 낮고 國產製品에 대한 信賴度不足으로 輸出에 따른 輸入誘發係數가 表3과 같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 비추어 原資材集約도가 높은 重電機器製品의 價格競爭力이 더욱 不利해져 갈 우려가 있다.

〈表-2〉 重電機器의 需給現況

(單位: 億원)

區分	年度	77	78	79	80	81
供給	生産	690	1,548	2,311	2,557	2,620
	輸入	976	1,549	2,176	1,616	2,115
合計		1,666	3,097	4,487	4,173	4,735
需要	內需	1,579	2,939	4,212	3,683	4,158
	輸出	87	158	275	490	577
輸入依存度(%)		62	53	52	44	51
自給度(%)		38	47	48	56	49
輸出比率(%)		13	10	12	19	22

資料: 商工部

〈表-3〉 輸出의 輸入誘發效果

(單位: 百萬弗, %)

區分	75	76	77	78	79	80
輸出의 輸入誘發額	1,780	4,476	6,447	7,862	7,827	8,853
輸出總額	5,081	12,711	17,505	20,993	21,616	24,223
輸入誘發率(%)	35.0	35.2	36.8	37.5	36.2	36.5

資料: 全經聯

〈表-4〉 製造業에 있어서 技術進歩의 成長寄與度

(單位: %)

美國 (1953~65)	日本 (1953~65)	台灣 (1967~79)	韓國 (1967~79)
69.1	52.3	27.1	20.8

資料: 全經聯

### 3) 財務構造의 惡化

높은 借入金 依存도와 資本의 固定化狀態不良으로 金融費用支出이 過大하여 收益率이 低調한 편이다.

또한 1970년대末의 國內景氣沈滯로 인한 累積赤

字的 發生으로 自己資本을 蠶食시켜 産業構造高度化를 위한 財源마련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 3. 輸入關聯制度의 變遷과 補完方向

産業構造高度화와 競爭力強化를 위하여 최근에 提示된 政府의 政策方向은 輸入自由화와 關稅制度의 改遷으로 나누어진다.

#### 1) 輸入關聯制度의 變遷

##### 가. 輸入自由化

強力한 對外開放經濟政策에 따라 輸入自由化率이 1975년도의 49.1%에서 1983년도에는 80.4%로 증가하였으며 輸入自由化의 早期實施計劃에 의거 1988년에는 100%의 自由化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나. 關稅制度의 改遷

정부는 정부지원의 均等最少化로 기업의 自力成長基盤을 굳건히 한다는 趣旨아래 特定産業에 對한 差等支援制度를 廢止하고 一般支援制度로 轉換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진 重要産業減免의 惠澤을 누리던 電氣機械製造業은 關稅減免對象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까지 關稅減免의 惠澤을 누리고 있는 特定産業에 대해서는 關稅減免時限制를 두어 全業種에 대한 公平課稅原則아래 課稅低邊의 확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점진적으로 高稅率體系를 縮少하여 1988년까지 20%의 中心稅率로 수렴코자하고 있으며 特定品目の 現격한 輸入增加에 대비하여 調整 關稅制를 新設하였다.

#### 2) 輸入關聯制度의 補完方向

##### 가. 補完의 必要性

輸入自由化의 충격을 소화해나갈 受容態勢은 그 發達段階과 技術水準에 따라 差異가 있으며 이런 경우 Ricardo의 古典의 比較優位論에 立脚하여, 과연 우리의 重電機工業이 規模의 零細性和 大企業 遍重의 二重構造의 脆弱性을 克服하고 産業構造의 高度化和 競爭力強化의 宿願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關稅率에 의한 價格調節機能이 資源의 最適效率化를 기하여 産業構造의 不均衡을 是正한다는 自由主義經濟를 절대 信奉한다 해도 현재와 같은 與件아래서 輸入自由化에 따른 重電機機資材 輸入의 急激한 증가가 部品工業의 落後와 完製品市場의 萎縮

과 같은 문제를 提起하지 않을 것이라고 樂觀단은 할 수 없다.

오히려 표3과 같이 輸出의 增加에 따른 輸入誘發效果가 점차 증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競爭力이 없는 일부 産業分野 또는 品目は 自然淘汰 되어 先進國에 隸屬되는 경우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상기 輸入自由化의 基本骨格아래서 産業構造改編에 따른 費用을 最少化하기 위하여 國產購買促進과 技術自立을 示顯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는데 있다.

##### 나. 制度補完의 方向

###### 가) 輸出金融制度의 改善

現在 品目 및 國產化率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適用되고 있는 輸出金融單價를 品目別로 基準 國產化率을 告示하고 國產化率에 따라 融資單價를 差等 適用하여 國產化率이 높은 業체일수록 輸出金融의 優待를 받는 制度的裝置를 마련해야 한다.

###### 나) 輸出用 原資材의 關稅賦課

수출이 분명히 우리경제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原動力임에는 틀림없지만, 部品調達の 지나친 輸入依存은 輸出産業의 産業關聯效果를 相殺할 뿐더러 部品供給을 擔擔할 中少企業의 育成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輸出用 原資材에도 일부 品質과 價格競爭力이 있는 品目부터 年차적으로 輸入關稅를 賦課하여 部品供給業체의 技術開發意慾과 投資意慾을 鼓吹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輸出完成品의 價格競争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部品工業의 育成이 完製品의 競爭力強化에 貢獻을 하게 될 것이다.

###### 다) 中小企業 施設材의 關稅減免

이제까지 政府主導下의 輸出産業化의 범주에서 疎外되어 支援에 인식하였던 中小企業에 대하여, 施設材의 導入時에는 關稅를 減免하여 部品工業의 育成 및 活性化를 圖謀하여야 할 것이다.

###### 라) 逆關稅率의 是正

完製品을 輸入할 경우 低率의 關稅率을 適用받으나 部品을 輸入할 경우 高率의 關稅率을 適用받게 되는 逆關稅率이 是正되어 國產화된 完製品의 購買機會를 擴充시켜야 한다.

###### 예) ○발전기(400kW이상)

완제품수입시 무관세, 부분품 30%

○전동차용 견인전동기

완제품 5%, 부분품 30%

○자동제어반

완제품 20%, 부분품 30%

마) 輸入代替製品에 대한 關稅減免

輸入代替製品開發의 積極育成을 위하여 現행 外資導入法 및 關稅法에 의거 關稅減免이 가능한 製品을 國産化하여 納品할 경우 그 製品이 소요되는 원자재의 輸入關稅를 完제품과 동일한 價로 減免하여 外國製品과 同等한 價格競爭을 벌일 수 있도록 誘導하여 야 한다.

#### 4. 輸入環境의 變化에 따른 重電機 業界의 對應戰略

最近의 國內市場의 果敢한 開放政策에 對應하여 業界에서는 이제까지 保護貿易의 테두리에서 安逸하게 추구하던 量的 成長의 姿勢를 脫皮하고 産業構造高度化를 위한 戰略再整備가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 1) 技術開發

우리나라의 工業化는 資本 및 投入勞動力의 增加에 따른 量的成長위주로 전개되어 70년대중 經濟成長에 對한 技術進步寄與率은 20%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1953년에서 1965년 기간중 미국과 일본의 技術進步寄與率은 각기 69%, 52%로서 技術進步가 成長의 牽引車役割을 하여 왔다.

韓國과 같이 累積된 資本과 賦存資源이 빈약한 나라는 生産要素의 比較優位上 知識集約産業으로 總力을 傾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工程의 研究改善, 新製品開發 및 新素材 開發等의 技術投資를 擴大하여 技術開發에 依한 成長戰略을 優先的으로 採擇하여야 할 것이다.

##### 2) 專門化·系列化

中小企業으로서 大企業에 대해 比較優位를 갖는 品目의 專門化와 大企業과의 相互依存概念 및 水平分業을 通한 中小企業의 系列化를 積極推進하여 重電氣業界의 下部構造強化 및 前後方 産業關聯效果의 上昇作用에 따른 均衡있는 成長戰略을 模索해야 한다.

#### 4. 結 言

輸入自由化와 關稅減免制度의 縮少로 大別되는 최근의 果敢한 開放政策은 이제까지 過保護속에 安住하던 우리의 重電機業界에 큰 波紋을 던져주고 있다.

技術水準의 현격한 低位 및 部品工業基盤 脆弱의 問題點을 안고 組立企業形態의 不均衡成長을 하고 있는 業界로서는 古典의 比較優位論에 依한 關稅만 의 價格競爭에 依하여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競爭力을 培養하기에는 年輪이 너무 짧고 規模 또한 零細하다.

따라서 開放經濟體制 受容態勢의 철저한 點檢을 통한 단계적이고, 신중하며, 時宜適切한 政策의 展開가 推進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현재의 바람직하지 못한 重電機工業의 自立度와 輸入誘發係數가 減안되어 國産化使用擴大를 위한 制度的 裝置의 補充이 要請되는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中小企業에 인식하였던 政府의 制度的 支援을 擴大하여 部品工業의 低邊育성과 민감한 國際經濟環境變化에 對處할 下部構造의 體質強化에 注力하여야 할 것이다.

業界로서는 무엇보다 技術優位政策에 依한 技術研究投資를 擴大하여 先進國과의 技術競爭優位에 依한 競爭力確保로 長期安定的成長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